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석사학위논문

# 한국의 가족주의와 시민참여:

가정 내 사회적 역할이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

2016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이 은 혜

한국의 가족주의와 시민참여:  
가정 내 사회적 역할이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재 열

이 논문을 사회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이 은 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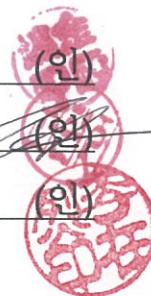
이은혜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7월

위 원 장 김 석 호 (인)

부 위 원 장 권 현 지 (인)

위 원 이 재 열 (인)



# 한국의 가족주의와 시민참여: 가정 내 사회적 역할이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이은혜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가정 영역 내 사회적 역할이 자발적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기존의 여성의 정치 참여 담론은 제도권 내 정치 참여 현상에 대한 지적에 머무르면서, 이의 기반과 조건이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시민사회 내부의 각종 결사체들 내부에서의 관계 및 절차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공평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결사체 참여에 있어 성별 분리 양상을 자료를 통해 보여줄 뿐 구체적인 기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 영역 내 사회적 역할- 배우자 역할과 부모 역할-이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것이 성별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성별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 역할의 경우 자녀 여부를 통해 측정되며, 배우자 역할의 경우 미혼, 기혼 등과 같이 결혼 지위를 통해 측정된다.

본 연구는 경험적 분석을 위해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했으며, 성별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살펴보

기 위해 상호작용 항을 투입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차례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배우자 역할은 동창회 참여와 사회봉사 단체 참여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모두 영향을 주되,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 역할이 없는 경우(미혼/사별 등) 이는 결사체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배우자 역할이 있는 경우 오히려 결사체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일한 방식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부모 역할 또한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부모 역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되, 오직 성별에 따른 차이가 고려되었을 때에만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주의와 이에 따른 가정 영역 내 사회적 역할의 효과를 통해 결사체 내 성별 분리의 기제의 단면을 밝히고자 했다. 한국의 가족주의와 이의 사회적 결과를 탐구한 기존의 연구들이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또 다른 공적 영역- 시민 참여의 영역에 주목하지는 못한 가운데, 본 연구는 가족 내 사회적 역할이 결사체 참여에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였다. 둘째, 자발적 결사체를 정의하는 데에 있어 기왕에 전제되는 범주나 유형을 사용하는 대신에 실제 자료에서 드러나는 결과를 토대로 유형 구분의 축을 구성할 것을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각 결사체 유형의 시민적 결과가 가지는 중요성과 함께 분석 결과의 함의를 논의했다.

주제어: 자발적 결사체, 성별 비교, 성별 분리, 가족주의, 결혼 지위, 부모 지위, 사회자본

학번: 2014-22311

## 목 차

1. 서론 .....	1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	6
2.1 결사체의 유형 분류와 시민적 결과 .....	6
2.2 한국의 가족주의와 공동체 참여로서의 사회권 .....	16
3. 자료 및 연구방법 .....	24
3.1 자료 .....	24
3.2 측정 .....	25
3.3 방법 .....	27
4. 분석 결과 .....	27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27
4.2 결혼 지위가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 .....	30
4.3 부모 지위가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 .....	37
5. 결론 및 토론 .....	44
참고문헌 .....	49
부록 .....	59
Abstract .....	66

## 표 목차

<표 1> 기술통계: 범주형 변수 .....	28
<표 2> 기술통계: 연속형 변수 .....	30
<표 3> 동창회 참여 예측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혼 지위 .....	31
<표 4> 사회봉사 참여 예측 로지스틱 회귀분석: 부모 지위 .....	34
<표 5> 동창회 참여 예측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혼 지위 .....	38
<표 6> 사회봉사 참여 예측 로지스틱 회귀분석: 부모 지위 .....	41
<표 7> 다차원 척도 스트레스 및 적합도 측정 .....	59
<표 8> 결사체 간 근접도 .....	59
<표 9> 결혼 지위의 효과: 서열 로지스틱 분석 .....	61
<표 10> 부모 지위의 효과: 서열 로지스틱 분석 .....	62
<표 11> 부모 지위가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	64

## 그림 목차

<그림 1> 결사체 간 근접성 .....	10
<그림 2> 시민사회 공공성의 두 차원 .....	13
<그림 3> 동창회 참여 예측 확률: 결혼 지위 .....	33
<그림 4> 사회봉사 참여 예측 확률: 결혼 지위 .....	36
<그림 5> 동창회 참여 예측 확률: 부모 지위 .....	39
<그림 6> 사회봉사 참여 예측 확률: 부모 지위 .....	42
<그림 7> 부모 역할에 따른 취업 여부 예측 확률 .....	43

# 1. 서론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문자해독률과 평균수명, 1인당 실질국민소득 등을 토대로 국가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HDI)에서 2015년 현재 한국은 188개국 중 17위에 위치한다.<sup>1)</sup> 한국현대사는 유례없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자랑해왔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내에 정치적 민주화도 달성했다. 특히 1948년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서구 국가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어내기 위해 겪었던 지난한 과정들을 상기해볼 때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또한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여성의 제도권 정치참여는 상당한 성장을 보여 왔다. 15대 국회에서 3%에 불과하던 여성 의원의 비율이 19대 국회에서는 14.7%, 20대 국회에서 17%로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하는 세계 성불평등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sup>2)</sup>, 2015년 한국은 전체 142개국 중 117위에 위치하고 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경제적 기회와 참여 지표를 통해 매긴 순위가 124위, 정치적 역능 지표를 통해 매긴 순위가 93위에 달한다.

제도권 정치 내 여성들의 영향력 확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로 여성들이 직접 제도권 정치 영역 내에 진출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여성들의 이해를 보다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당선시키는 것이다. 이에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이러한 두 가지 지점에 주목해온 것으로 보

---

1) <http://report.hdr.undp.org>

2) <http://www3.weforum.org/docs/GGGR2015/cover.pdf>



인다. 16대 총선 이후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 등 여성의 활발한 국회 진출의 원인이 지적되는 한편(김원홍·김혜영 2012; 송경재 2014에서 재인용), 이의 결과로서 여성 정치인의 존재가 일반 여성 유권자들의 정치 효능감을 함양해준다는 점 등이 밝혀지기도 했다(Wolbrecht & Campbell, 2007). 한편으로는 여성 유권자의 특성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초기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 ‘보수적’이며, ‘낮은 정치적 지식과 관심,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대표적으로 Campbell et al, 1960).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여성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제출되었다(김형준, 2014). 또 지난 대선 결과는 여성이 더욱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음을 보여주었고, 성별에 따른 대학진학률도 여성이 남성을 앞선지 오래다(통계청, 2016).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민주화와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사회는 각종 성 불평등 지표에 있어 여전히 형편없는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일까?

Manin(1997)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대의제도는 참여·결사·심의 등의 다양한 층위에서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정치 참여와 이에 수반된 사회적 결과들은 하나의 제도적 영역 내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사회 구조 및 시민 참여 영역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전지구적인 신자유주의화와 그에 따른 노동, 복지,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통적인 국가영역의 위축이라는 현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는 시민사회와 제도권 정치의 경계 및 시민 참여의 시공간적 제약을 해체하였으며, 또 일상 수준에서는 시민 개개인의 삶의 결정에 관한 정치, 정체성에 관한 선택의 정치 등 “근대성의 핵심 제도- 국가, 시장, 계급, 정당 정치 등-에 의해 억압되었던 실존적인 문제들”(기든스, 1997)이 전

면에 부각되었다.<sup>3)</sup>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여성의 정치 참여 담론은 제도권 내 정치 참여 현상에 대한 지적에 머무르면서, 이의 기반과 조건이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결사체 참여 영역의 학문적 중요성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참여의 영역을 전통적·제도적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평을 넓혔을 때, 여성이 공동체 기반의 결사 모임과 같은 비제도적 참여 영역에서 활발한 행위자라는 점이 지적되어 온바 있다(Verba et al., 1997). 따라서 실제 생활 세계 내에서 참여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해체’ 및 ‘개인화’ 경향을 가져오는 전지구적 사회변동과 함께 시민참여 영역은 축소되고 있는 듯 보인다. 사회자본 감소에 대한 퍼트남의 우려를 지지하는 듯이,<sup>4)</sup> 최근의 보고서<sup>5)</sup>는 근래(2006) 미국사회에서 커뮤니티와 종교 모임과 같은 결사체의 참여 수준이 30년 전과 대비하여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

3) 생활정치를 근대성의 체계정치 패러다임과 대비시키면 몇 가지 비교의 준거점이 드러난다. 먼저 주요 행위자이다. 정부, 의회, 정당, 기업 등이 체계정치에서 주요 행위자였던 데에 비해, 시민단체, 지역주민단체, 온라인 기반의 집단 등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한다. 둘째로 추구되는 이념 및 가치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냉전적 이념정치나 성장주의 등이 강조되었던 것에 비해 정체성 지향,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주요 정치 이슈들도 차이를 보이는데, 경제성장, 분배, 안보 등의 이슈들이 주로 나타나는 것이 비해, 환경, 평화, 여성, 인권, 이웃, 도시 등의 이슈들이 제기된다(조대엽, 2015: 90-91에서 재구성). 두 가지 층위 모두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결사체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맥락에서 2008년의 촛불집회가 ‘먹지 않을 권리’를 표방했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10대 청소년들에 이어 가정주부들이 대거 가담하였던 2008년의 촛불집회는 “신사회운동 이론이 강조해 온 생활정치의 이념형이 고스란히 현실화된 순간으로”(김상준, 2011), “생활정치운동의 프레임이 광범위하게 표출된 것으로”(조대엽, 2012), 이해되었던 것이다.

4)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Paxton(2002), Newton(2001)을 참고할 수 있다.

5) National Conference on Citizenship in Association with CIRCLE and Saguaro Seminar. America's civic health index: broken engagement 2005. <http://www.ncoc.net>.

최근 15년간의 결사체 참여 현황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연고집단과 결사체에 두루 참여하는 ‘포괄적 참여자’의 비율은 15년전 33%에 대비하여 2015년 16.1%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김석호, 2016). 정치 참여 및 민주주의의 질과 관련된 효과 이외에도, 결사체 참여가 개인의 공동체로의 결속을 가져오는 효과를 고려하면 이는 특히 우려할 만한 현실이다.<sup>6)</sup> 이러한 조건들 아래에서, 결사체를 통한 공동체로의 결속에 누가 배제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무엇이 이 배제를 설명하고 있는가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시민 참여를 설명해온 관점들에 따르면, 결사체 참여로 이어지는 개인의 결정은 제도화된 문화적 틀에 의해 규정된다(Berger and Luckman, 1966).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적 틀의 하나로 한국의 가족주의와 여기에서 수반되는 가족 영역 내에서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점에 따라 가족주의에 대한 정의는 다르지만, 한국이 강한 가족주의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이 여타의 사회적 관계 양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일반화된 인식이다(정재기, 2007). 이것이 여성의 공적 영역에서의 참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면, 여성에게 주어진 가사 노동과 노동 시장에서의 참여와의 양립에 관한 연구들이 주목할 만하다. 일례로 한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유형이 M자형을 최초로 나타낸 것은 1942-46년 코호트임을 밝혔는데, 이는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가 여성인력의 급속한 산업노동자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전업주부화를 유도한 독특한 사회문화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가족형성기의

---

6) 동어반복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결사체 참여는 개인으로 하여금 풍부한 관계적 자원을 가지게 해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Cornwell et al., 2008).

여성의 탈취업은 소극적인 노동시장의 퇴장이 아니라 “여성의 전일제 노동을 요구하는 가족제도 및 이데올로기를 통해 형성된 한국사회의 발전 방식”으로서 적극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최선영·장경섭, 2009). 그런데 가족주의의 사회적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들은 시민 참여의 영역에 주목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결사체를 기반으로 한 시민 참여가 오늘 날과 같은 생활정치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할 때(김기홍, 2014, 김영배, 2013), 이는 중요하게 주목받아야만 하는 지점이다.

기존의 사회자본론 혹은 시민사회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여성주의적 관점들은 시민사회 영역 내의 결사체들이 구조적으로 성별 분리 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이미 제기해왔다. 이러한 관점들에서는 시민사회 내부의 각종 결사체들 내부에서의 관계 및 절차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공평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결사체 참여에 있어 성별 분리 양상을 자료를 통해 보여줄 뿐 구체적인 기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했다. 이에 이상의 문제의식들에 기반 하여, 본 연구는 가족 영역 내 사회적 역할- 배우자 역할과 부모 역할-이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것이 성별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성별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 역할의 경우 자녀 여부를 통해 측정되며, 배우자 역할의 경우 미혼, 기혼 등과 같이 결혼 지위를 통해 측정된다.

논문의 구성은 총 5장으로 이루어진다. 1장에서는 한국 여성의 낮은 정치 역능 지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결사체 참여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다룬다. 우선 1절에서는 결사체의 유형 분류를 통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결사체를 한정하고, 각 유형별 결사체가 가지는 시민적 결과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각 결사체 참여 과정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배제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다. 2절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제로 한국의 가족주의 및 가족 영역 내 사회적 역할의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이 효과들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결사체 참여로 규정되는 사회권 논의와 함께 다룬다. 3장은 연구 자료와 측정, 분석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 대해 소개하고, 기술 통계를 제시한다.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며, 상호작용항의 투입을 통해 부모역할과 결혼지위 내에서의 성별 차이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하고 결과의 함의를 논의한다. 연구의 한계와 보완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 (1) 결사체의 유형 분류와 시민적 결과

토크빌(1968)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자발적 결사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래로, 미국의 시민사회에서 결사체의 시민적 결과는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Almond & Verba(1963)에 따르면, 결사체의 회원들은 비참여자에 비해 자신을 보다 능력 있는 시민으로 규정하며, 높은 수준의 정치 관심도, 정치 지식, 정치 참여를 보여주고, 민주적 규범을 지지한다. 이후 결사체의 시민적 결과에 대한 기대는 베트남으로 대표되는 사회자본론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들에 의해 지지되고 강화되었다. 자발적 결사체 참여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높은 수준

의 일반화된 신뢰 및 호혜적 규범을 함양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Brehm and Rahn, 1997; Stolle, 1998; Putnam, 2000),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구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Verba et al., 1995). 이에 활발한 결사체 참여는 건강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주목받아 왔으며(Fung, 2003), 정치참여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기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항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던 것이다(Ayala, 2000).

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형태의 결사체가 긍정적인 시민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다. 우선 어떤 성격의 결사체인지, 그리고 어떤 성격의 시민 참여인지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내의 결사체 중에는 풀뿌리적 성격의 참여에 기반을 두고 민주주의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상층 엘리트들끼리 내부 권익을 주창하는 대표성 없는 단체도 있고, 극우적인 성격을 가지는 단체도 존재한다(Skocpol, 1996; Skocpol & Fiorina, 1999). 이런 점에서 단순히 결사체의 활동에 있어서의 양적 빈도만을 두고 이를 민주주의의 질과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연고 집단이 시민사회 성숙이나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오면서 한국사회 맥락에서 자발적 결사체 개념 자체와 사회자본 이론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제기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동창회와 같은 연고 집단을 자발적 결사체로 간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 근대적 의미의 자발적 결사체의 활성화 이전에 혈연·지연 공동체의 영향력 하에 연고를 중심으로 사회집단들이 형성되어 왔던 한국의 역사적 맥락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적되면서(이재열·남은영, 2008), 연고집단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짐으로써 집단을 넘어서는 보편

적인 연대감을 저해하고(이재열, 2001), 연고집단의 과당적 연출망이 가지는 집단 내적 호혜와 사적 신뢰가 배타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보편적 타자에 대한 신뢰 혹은 공적 신뢰는 훼손된다는 주장(이재혁, 1996)이 제기되었다.

결사체의 성격 논쟁에서 크게 주목되는 것은 ‘집단의 목표’와 ‘집단의 구성 원리’라는 두 축이다. 연고집단의 멤버십은 귀속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집단의 목표가 얼마나 공공성을 지니느냐 하는 문제가 거론된다(이재열, 2003) 그런데 이것은 비단 연고 집단에만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며 결사체 전반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집단 구성 원리의 측면에서 시민단체 가입 과정 중 연고에 의한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송호근, 1998), 따라서 연고집단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결사체의 기반이 연고집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결사체 참여가 기본적으로 연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김석호, 2016)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집단의 목표와 개인의 참여 동기 측면에서도, 집단의 목표가 공적 관심인지 여부를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재열, 2003), 공적 관심을 목표로 하는 집단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참여의 계기가 사사로운 목적(친구의 부탁)으로 인한 것일 경우 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이승훈, 2002) 등이 지적된다. 이에, 집단의 형태와 연결망의 속성만으로는 사회자본의 효과나 결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이재혁, 2007).<sup>7)</sup> 이러한 이론적·분석적 차원에서의 어려움은 사회자본론의 이론적 틀이

---

7) 연고 집단이 여타 결사체에 비해 더욱 폐쇄적이고 동질적인 연결망인지의 여부도 경험적 검증의 대상이다. 실제로 연고집단의 폐쇄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입장도 존재한다(류석춘 외, 2012). 뿐만 아니라 대표적 자발적 결사체인 시민단체는 가입 절차가 개방적일 것이라는 상식적 기대와는 달리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하며, 또한 구성원의 동질적인 연결망 특성도 지적되곤 한다. 이런 점에서, 집단의 형태와 연결망의 속성 만으로는 그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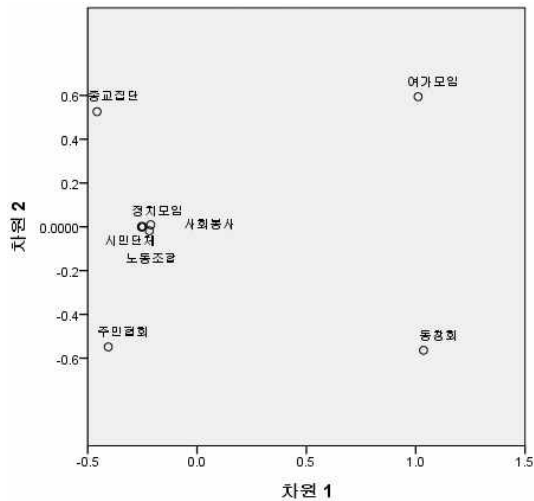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검증하는 다수의 연구 결과들이 제출되어온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sup>8)</sup>

이러한 논쟁들은 결국 사회적 자본의 측정이나 결사체 참여의 시민적 결과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이론적 틀과 분석을 위한 척도가 더욱 정밀하게 고안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여러 차원을 바탕으로 하는 각 유형들은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실제로 집단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성격이 곧 각 집단의 성격을 규정지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이 글에서는 기왕에 전제되는 범주나 유형을 사용하는 대신에 실제 자료에서 드러나는 결과를 토대로 유형 구분의 축을 구성할 것을 시도한다. 그리고 공공성의 두 차원을 통해 해석을 시도하고 분석의 대상을 한정할 것이다.

---

8) 시민 단체의 회원들이 보여주는 ‘타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동창회, 계 모임 참여자들의 그것보다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다는 것을 드러낸 연구(이선미, 2004), 자발적 결사체에 많이 참여하는 구성원일수록 동료 시민에 대한 불신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유재원, 2000), 동창회가 강한 내집단 신뢰를 형성할 것이라는 가정과 달리 오히려 신뢰 부족의 문제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류석춘 외, 2008) 등이 있다.





<그림 1> 결사체 간 근접성

<그림 1>는 이차원 척도를 채택하여 결사체 간의 거리를 나타낸 그림이다.<sup>9)</sup> 이 그림에서는 두 항목 간에 가입여부가 같은 응답자들의 수가 많을수록 더 비슷한 성격의 집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 항목이 가깝게 배치되고, 반대로 가입여부가 같은 응답자의 수가 적을수록 멀게 배치된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와 [사회봉사클럽]은 같은 응답자들에 의해 선택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거리가 가깝고 (0.005) [여가모임]과 [주민협회/반상회]의 경우 반대로 상대적 위치가 멀게(1.82) 나타난다.<sup>10)</sup>

9)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는 아홉 개의 결사체 문항이 포함되었다. ①정치모임 ②주민협회, 반상회 ③사회봉사클럽(자원봉사단체, 비영리단체) ④시민사회단체, 소비자 협동조합 ⑤종교집단 ⑥동창회(동창 모임) ⑦여가모임(취미 및 스포츠) ⑧노동조합 ⑨직능단체, 상거래 단체

10) 모형적합도 및 2X2 근접도 정보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이제 지도상에 나타난 각 집단 간의 거리를 보면서 위치별 의미를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에서 동창회와 여가 모임은 차원 1을 축으로 할 때 가깝게 만나고, 동창회와 주민협회는 차원 2를 축으로 할 때 동일한 선상에 놓인다. 차원 1의 경우 차원 2에 비해 축이 나타내는 절대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 쪽의 극단에 여가모임과 동창회가 위치하고 있다. 여가모임의 경우 활용된 자료상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참여의 양적 수준이 높은 편이고, 통계청의 사회동향 보고서에서도 친목 단체의 참여 비중이 최근 높아진 것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통계청, 2015) 참여의 효과가 참여 구성원 개인의 효용을 넘어 공동체 지향적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조대엽, 2014). 뿐만 아니라 동창회와 같은 연고집단은 공적인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집단 내부의 배타적 연결망으로 작동함으로써 공식적인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김우식, 2004). 이에 비해 차원 1의 반대 축에 위치하는 집단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든지 특정 이슈를 기반으로 하든지, 그 크고 작음과 유형에 상관없이 모종의 공동체 지향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원 2의 경우 [종교집단]과 [여가모임]을 하나의 축으로, [주민협회]와 [동창회]를 반대 축으로 하고 있다. 이에 차원 2를 집단의 구성 원리에 따라 나뉘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출신 대학과 같은 귀속적 지위에 따라 멤버십이 정해지는 경우와, 반대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열려 있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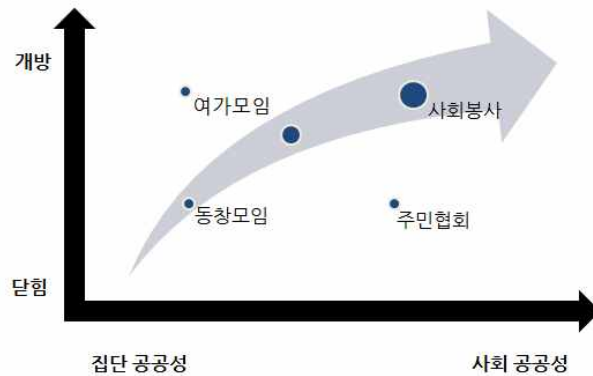
종합하면 시민사회 공공성은 다음의 두 차원으로 구성해볼 수 있다. 첫째는 공적 활동이 미치는 사회적 범위에 따라 ‘집단 공공성’과

‘사회 공공성’으로 나누는 것이다. 집단 공공성은 연고 집단, 동호회 등 일상적으로 집단 내 상호부조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지향적 공공성을 의미하며, 사회 공공성은 환경, 평화, 평등, 인권 등 집단경계를 넘어서는 더 보편적 지향의 공공성이다(김상준, 2003).<sup>11)</sup>

두 번째 차원은 특정의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는 개방성(openness)이다. 집단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과 신뢰가 강할수록, 그것이 집단 밖으로 확장되기보다는 내부로 제한될 것이고, 이는 사회적 수준에서 민주적 절차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Bell, 1998, 이승훈 2008에서 재인용). 이는 ‘만인에게 드러남’(신진옥, 2007), ‘가시성·접근성’(이승훈, 2008)의 차원과 관련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접근성이라는 기준은 공공성을 구성하는 기본 전제에 해당”(이승훈, 2008: 22)한다. 연고집단을 비롯한 배타적 연결망이 그 귀속적, 제한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사회적 신뢰를 낮추는 역기능을 할 수 있다는 앞선 지적을 고려한다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분석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공공성

11) 이것은 이제껏 다양하게 정의되어 온 ‘공공적인 것’(the public)의 개념을 이루는 핵심적인 분석 차원을 구성한다. 코헨과 아라토(1992)는 시민사회의 요건으로 제시한 네 가지 차원으로 (1) 다원성, (2) 공공성, (3) 사생활, (4) 법률성을 제시한다. 신진옥(2007)은 공공성의 분석정 정의의 다섯 차원 중 첫째로 “다수 사회구성원에 대한 영향”을 꼽고 있다. 이는 어떤 행위가 다른 행위자들에게 미치는 결과라는 관점에서 ‘공공적인 것’의 특징을 규명하는 접근인데, 행위자 간의 교류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을 넘어서는 결과를 낳는 행위결과로 구분된다. 물론 현실 속에서는 순수하게 공공적인 것과 순수하게 사적인 것 사이의 스펙트럼 위에 다양한 ‘공공성의 정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승훈(2008)은 공공성을 ‘내용 공공성’, ‘절차 공공성’, ‘주체 공공성’의 세 차원으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내용으로서의 공공성’이 개인이나 부분이 아닌 전체의 이익, 곧 공익을 의미한다. 조대엽(2015)은 사회구성적 공공성의 요소를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의 세 차원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공공성이 작동하는 사회의 하위 영역에 따라(국가 혹은 시장), 공간적 범위(지역, 국가, 지구) 등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한다. 따라서 실체가 있는 제도·조직의 개념으로서의 ‘공공적인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현장에서 공공적 이슈를 발견하고 공공성의 규범적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에서 ‘공공적인 것’을 규정하려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을 두 차원으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시민사회 공공성의 두 차원

이에 따라 두 차원을 기준으로 대척점에 위치하는 [동창모임]과 [사회봉사단체]를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sup>12)</sup> 동창회는 한국사회에서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단체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주요한 준거점이라고 판단하였고, 공익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론적 논의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단체를 대응점으로 삼았다.

기존 문헌에서도 동창회와 사회봉사단체는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는 한국의 결사체로 다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선미(2003)는 오페와 폭스(Offe and Fuchs, 2002)<sup>13)</sup>의 결사체 유형 분류에 따라

12) “종교집단”의 경우 자발적 결사체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분분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경우 특히 종교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집단적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 제외하였다.

13) 이는 ‘단체 목적의 가변성 정도’와 ‘멤버십의 가변성 정도’를 두 축으로 하고 있다(이선미, 2003).

한국의 결사체를 분류하는데, 이에 따르면 봉사단체와 동창회는 결사체의 제 유형들을 대표하고 있다. 먼저 사회봉사단체의 경우 확고한 단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 멤버십에 대한 관리가 철저한 유형에 속한다. 이에 비해 동창회의 경우 목적과 구성원의 고정성이 조금 더 낮은 유형에 속하는데, 결사체에 의해 추구되는 목표는 비교적 덜 특정화되어 있어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각 유형에 따라 각 결사체의 시민적·정치적 결과는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먼저 사회봉사단체의 경우 사회 공공성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결사체로, 시민성을 함양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치적으로 활발한 시민인 것으로 나타나곤 하는데, 이는 봉사단체로의 참여가 참여자로 하여금 정보를 공유 하도록 하고(Knoke 1990), 시민적 기술의 제고를 도우며(Verba et al 1995), 일반화된 신뢰의 함양을 돕기 때문(Stolle 1998)인 것으로 이해된다(Willson, 2000에서 재인용). 이외에도 자원봉사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점(Hamilton & Fenzel 1988), 그리고 자원봉사가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더욱 결속되도록 한다는 점(House et al 1988)등이 지적되었다(Willson, 2000에서 재인용).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창회의 경우, 추구되는 특정한 목표나 계획 등이 사회봉사단체에 비해 가변적인 특성을 보이며 이는 집단 내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내용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동창회는 대표적인 퍼트남적 의미에서 면대면 결사체로, 참여자의 사회연결망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정치적 동원의 기회를 높여줄 수 있다(Kim, 2016). 이러한 사회연결망은 다양한 정치적 기회에 대

한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인다. 이에, 일견 정치적인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결사체에서도 유의미한 정치적 결과를 낳는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Abramson and Claggett 2001; Huckfeldt et al. 1995; Kim 2016에서 재인용).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 및 높은 수준의 시민성이 대의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에 필요조건임을 기억한다면, 각각의 맥락에서 결사체 참여의 효과가 가지는 중요성은 자명하다.

이렇듯 결사체 참여는 오늘 날 시민사회 논의에서 중심적인 축으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Hyden, 1997), 시민사회 내부의 각종 결사체에서 내부적으로 혹은 그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민주적이며 공평한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이선미, 2003). 시민사회 내 결사체의 각 유형들이 참여에 있어서 성별 분리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먼저 동창회의 경우 여성들이 남성에게 비해 교육 수준이 낮거나 직장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사체에서 활발히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렇듯 사회자본론에서 민주적 규범의 산출고로서 여겨지는 면대면 결사체에서의 참여가 특히 한국의 경우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이선미 2003). 다음으로 사회봉사단체의 경우, 여성들은 이른바 ‘공익적’ 활동이라는 고정된 단체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라는 상황 및 경제활동 참여로의 제약 등으로 인해 시간적·조직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이선미 2003).<sup>14)</sup> 이렇듯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기존의 사회자본 담론이 성

---

14)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에게 비해 더욱 자원봉사에 활발히 참여한다는 기존

별 구조적 갈등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의 의미를 간과했음을 지적하며, 이에 성별 분리 및 내적 배제의 양상 및 그 기제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배제의 기제에 대해 더욱 자세히 논의하고, 연구 가설을 도출하도록 할 것이다.

## (2) 한국의 가족주의와 공동체 참여로서의 사회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시민권을 통해 설명되어 왔으며, 이는 동시에 특정 집단이 ‘시민’의 자격에서 배제 당했음을 함축하기도 한다. 시민권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당 국가의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의 영향력 아래 구성되며 (Brubaker, 1992), 이에 시민권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sup>15)</sup> 다양한 방식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근대 국가에서

---

연구 결과들(Gaskin and Smith 1997, Hall et al 1998, 김성경, 2009)을 고려할 때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이타심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을 돕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점을 보고해왔다(Wilson and Musick 1997).

뿐만 아니라 결혼 여성의 경우 자원봉사를 자신의 배우자 혹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이는다는 연구 결과가 제출된 바 있다(Negrey 1993). 이에 따라 많은 연구들은 부모지위와 결혼지위와 같은 가족 관계가 자원봉사 참여에 미친 영향을 탐구해 왔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더욱 봉사에 참여하고, 아이가 없는 싱글의 경우 가장 많은 시간을 봉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undeen, 1990). 또한 “어느 영역”에서의 봉사활동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가령 결혼지위는 정치적 봉사활동 여부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chlozman et al 1994, Damico et al 1998). 또 이러한 결혼지위 효과는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문제 제기와 이에 따른 연구 결과들도 다수 제출되었으나, 엇갈린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Wilson, 2000).

- 15) 브루베이커는 근대 특유의 시민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시민자격에 대한 공식적 규정, 공통의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는 시민적 평등의 확립, 정치적 권리의 제도화, 시민과 외국인 간의 구분에 대한 법적 합리화와 이데올로기적 강조, 국민주권의 교의 및 시민권과 국민신분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식화, 구체제의 특징이었던 시민과 국가 간의 매개적·간접적 관계로부터 즉각적·직접적 관계로의 이행”(Brubaker, 1992: 35). 터너(Turner, 1990)는 근대 시민권에 수반되

는 모든 자격 있는 성인들이 동일한 공식적 신분을 누려야 한다는 기대가 부분적으로 실현되었고, 바로 이 사실이 근대적 시민권을 이전 시대의 그것과 구분해 준다(피어슨, 1998).

그러나 ‘보편적 성격’을 지닌 근대의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은 법적·형식적 권리에 기초한 권리 개념에 한정된 의미를 가진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이 관심을 갖는 개인은 그 자체로 이미 성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본다(Pateman, 1988). 이들은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에 있어 결혼과 전통적 가족형태가 가지는 역할에 주목한다. 가령 보겔(Vogel, 1991: 62)의 설명에 따르면, “여성의 시민권에 가해지는 특이한 제약은 무엇보다도 결혼과 함께 그들이 시민의 신분이라는 기본 자격을 상실한다는 사실로부터 파생한다.” 이렇게 “관계적 측면”에 주목할 때의 시민권은 이전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정의된다. 즉, 단지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의 전체 사회영역에 대한 참여와 사회적 성원권의 문제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Turner, 1997: 121-145). 유사한 맥락에서, 킴리카와 노만(Kymlicka & Norman, 1994: 353)은 한 사람의 시민권의 정도와 성격은 그 사람의 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함수 관계를 이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들은 시민권의 두 차원을 구별하는데, 법적 신분으로서의 시민권(citizenship-as-legal-status), 그리고 활동으로서의 시민권(citizenship-as-desirable-activity)이 이에 해당한다.

---

는 권리와 의무한 항상 상이한 역사적·국가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해 왔음에 주목하여, 두 가지 질문- 1) 시민권이 밑으로부터의 결과인가, 아니면 위로부터의 결과인가? 2) 시민권이 주로 적극적인 공적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제로 인식되는가 아니면 국가의 간섭적 개입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가?-에 의해 두 축을 구성한다. 마셜(Marshall, 1964: 70-4)은 세 종류의 시민권-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를 규명하고, 각각이 해당하는 ‘전형적인’ 역사적 시기들과 상응하여 3백여년 동안 누적적으로 확보되어 왔다고 보았다.



이렇게 법적 시민권의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참여적 측면에 주목하고, 여기에서 가능한 불평등의 요소에 주목하는 것은 생활정치가 각 시민 개개인의 자기실현의 정치이자 오늘날 새로운 공적 질서를 구성하는 동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해진다. 뿐만 아니라 불평등의 기제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결혼과 전통적 가정 내 관계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는 관점은 한국사회를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의 경우에 더욱 적실성을 가질 가능성을 가진다. 서구권 사회에 비하여 주로 아시아권의 사회들이 ‘관계 속에 배태된 개인’을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점은 널리 주목받아온 바 있다(니스벳, 2004). 또한 한국 사회의 경우 강한 가족주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것이 여타의 사회적 관계 양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일반화된 인식이다. 가족주의를 정의하는 방식은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집단이며 가족집단은 국가를 포함한 다른 어떠한 사회집단보다 우선된다는 신념”으로 정의된다(최재석, 1965; 조혜정, 1985, 최섯별 외, 2003에서 재인용). 이는 단순히 가족제도를 중시하는 문화적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와 연결되는 특수한 방식을 의미하며, 이 때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개인은 가족을 통해서만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장경섭 외, 2015).<sup>16)</sup>

16)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주의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역사적 맥락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조혜정(1986)은 국정의 문란으로 가족 및 친족 단위로 뭉쳐서 생존을 유지해왔던 조선 중기 이후 시대상이나, 일제 강점기와 6·25전란 등을 겪으며 “가족 외에는 자신을 보호해 줄 어떤 조직도 없으며 생존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가족 및 친족자원이 수시로 동원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조직의 연줄망적 특성이 더욱 강화되어온” 역사적 맥락을 지적한다. 취직부터 시작해 모든 공·사적 문제의 해결이 혈연에 근거한 연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과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로 이루어진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가족’은 구조적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자원이었다는 것이다. 장경섭

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시민 참여를 설명해온 연구들에 따르면, 결사체 참여로 이어지는 개인의 결정은 제도화된 문화적 틀에 의해 규정된다(Berger and Luckman, 1966). 이러한 문화적 틀은 ‘정당한 행위’를 구성하는 지식이나 가치들로 구성되며, 이를 사회 전반에 공유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존재한다(Meyer and Jepperson, 2000).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정치체제의 형태, 종교적 문화, 민주주의 체제의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 간 비교 연구들이 수행되기도 하였다(Curtis and Douglas, 2001). 하지만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더욱 정교한 양상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가족주의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세대·연령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유교적 가족규범 및 도구적 가족주의가 결합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 온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결사체 참여의 사회적 권리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족 내 사회적 역할과 이러한 역할의 점유가 개인의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하게 주목하고자 하는 요인은 먼저 배우자 역할을 규정짓는 결혼지위이다. 결혼지위의 효과를 탐구하는 기존 연구들은 주로 그것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고, 이에 주로 가족학이나 인구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일관적으로 결혼이 건강 증진 효과를 가짐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혼이나 사별을 통한 역할의 상실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아를 구성하는 주요 축을 상실했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그리고 개인이 가진 자원의 변화를 통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송지은·Marks

---

(2009)은 그 결과 전통 가족농업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일종의 ‘도구적 가족주의’가 다양한 계층과 직종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2007; Hughes & Waite 2002; Williams 2000, 손정연·한경혜 2012에서 재인용)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효과는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2차적 관계망, 결사체 참여에 모종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진다. 1차적 관계망의 여부 그 자체가 2차적 관계망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사회 내 일정 역할을 소유함으로써 그 역할 정체성에서 삶의 의미와 사회통합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특히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유효할 가능성을 가지는데, 한국사회의 경우 가족과 같은 1차 관계가 2차 관계를 강화하는 “상호보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교연구결과가 제출된 바 있다(김안나 2003).

요컨대, 결혼지위를 통한 배우자 역할은 성인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기초적인 단위로, 이 관계망의 존재 여부와 관계의 질은 친족 집단이나 이웃과 같은 2차적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질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관계망이 일정한 공간을 공유하며 상호작용을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다고 할 때, 그리고 결혼지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역할(social roles)이 여타의 사회적 관계 맺기를 더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House et al., 1988; Umberson & Williams, 1999, 차승은, 2007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말해 미혼이나 이혼 등 기타 집단에 비해 기혼 집단이 공동체 기반 결사체에 더욱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경우 다른 예측도 가능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배우자 역할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 성별에 따른 예측의 방향성은 어떤 종속 변인을 주 관심으로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종속 변인을 2차적 사회적 관계망으로 둘 경우, 남성의 경우 배우자 역할의 상실과 같

은 부정적 변화는 불리한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국내외의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과 비교할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김수정·권신영, 2001), 이혼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남성에게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점(Gerstel et al., 1985, Ross, 1995, 전신현, 2007에서 재인용)을 보고해왔다. 이는 1차 관계가 남성에게 있어 주요한 사회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며,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배우자를 지지원으로 여기는 경향은 남성의 경우 더욱 두드러짐이 밝혀졌다(한경혜 외, 2003). 바꿔 말하면, 배우자 역할의 점유가 2차적 관계망에는 미치는 정의(+) 영향은 남성의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미혼 집단의 경우 기혼 집단에 비해 가정 내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기존의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계망을 고려하면 반대의 예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배우자 역할의 부재 그룹 간에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sup>17)</sup> 그러나 배우자 역할의 “점유”의 효과만 두고 본다면, ‘아내’ 혹은 ‘배우자’의 역할 정체성에 따라 이것이 결사체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결사체 참여가 다른 형태의 참여보다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 가사 노동이 여성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데 여성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 가족이 남성에게 주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반면 여성은 가사노동전담자로 규정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성의 경우 배우자 역할의 점유가 결사체 참여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 제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

17) 가령, 이혼 집단의 경우 가정 내 재정 의존도로 인해 여성이 이혼 시 재정상의 문제를 겪음으로 인해 이후 사회적 관계망에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등의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Horwitz et al., 1996).

한편 부모 역할이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의존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예를 들어, 가정 내 돌봄의 대상이 되는 아이가 있다는 것은 결사체와 같은 단체 참여에 제약일 것으로 일견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봉사단체에 많이 참여한다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이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자신의 부모로서의 역할 정체성을 자원봉사의 맥락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살펴본 바 있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는 여성의 경우 양육을 위해 파트타임 형태의 노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타의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획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이 경제, 사회, 정치 발전의 ‘일상적 기초’로 기능해왔으며, 여기에서 양육의 부담이 주로 여성들에게 지워져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부모의 역할 정체성이 한국의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결사체 참여에 제약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결사체 참여가 다른 형태의 참여보다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 그리고 자녀 양육 및 가사 노동이 여성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데 여성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돌봄노동의 의무가 주로 여성에게 지워져 왔다는 점에서 결사체 참여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 부모역할의 효과가 여성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듯 보수적인 성분업과 자녀양육에 대한 높은 의미 부여는 한국 가족의 주요 특징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여성의 경제 활동 축소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탐구된 바 있다.<sup>18)</sup> 하지만 근대

---

18) 가정 내 성분업은 한국의 핵가족이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 전담이라는 특성을

이후 가정 내 역할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의 축소는 비단 한국사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가령 신고전경제학의 분석틀에서는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임금 함수를 통해 설명한다(Becker 1954, 1965;). 그러나 이러한 임금 함수가 왜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성·가족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사회적 권리가 ‘가족을 단위로 구성되는가’ 아니면 ‘개인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 책임의 범위 및 개입 방식 등을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려했을 때 결혼여부가 여성의 사회적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Nakamura and Nakamura 1991; Sainsbury, 1999; Meyer et al., 1999, 2001; 장지연·부가청 2002에서 재인용).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 가족이 여성이 주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조차 여성을 이차부양자이자 가사노동전담자로 규정하고 기대한다는 점(김수정·김은지, 2007), 국가복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의 주된 책임은 가족이 맡고 있다는 점(김영미, 2009), 탄력적 근무 제도, 육아 지원과 같은 기업의 가족 친화제도 역시 제도의 시행과 실질적 이용이 분리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안병철, 2011) 등을 여러 조건들을 고려한다면, 결혼여부와 여기에서 비롯되는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의 점유가 한국 여성들의 결사체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

---

보이는 까닭으로 이해되었다(김자혜·김미숙, 1990; 윤택림 1996; 이재경 2003, 장경섭 2009에서 재인용). 또 자녀양육에 대한 높은 의미부여와 이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기혼 여성들이 직장생활에 대해 남성 못지않은 애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약으로 기능해왔음이 밝혀졌다(장지연·부가청, 2003).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 경제적 조건들로 인해 저출산, 만혼화가 주요 사회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최근에도 전통적인 부모역할이나 가족가치가 여전히 한국인들의 주요 가치관임이 확인되기도 했다(이민아, 2013).

및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혼 집단과 비교해 이혼, 사별, 미혼 집단의 결혼 지위는 결사체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결혼 지위에 따른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가설 1-1]** 배우자 역할의 부재는 남성의 결사체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2]** 배우자 역할의 점유는 여성의 결사체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부모 역할은 결사체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부모 역할이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가설 2-1]** 부모 역할의 점유는 여성의 결사체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자료 및 연구방법

#### 1) 자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한국종합사회 조사는 전국수준에서 대표성을 가지며, 다단계지역집락표집법을 통해 표집 되었다. 2012년 자료에는 사회자본에 대한 동아시아 사회조사 모듈이 포함되었다. 사회 신뢰, 사회적 연결망, 정치/사회 참여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응답 대상자의 연령은 18세 이상이며, 응답자는 남자 617명, 여자 779명으로 총 1,396명이다(응답률 56%). 통제변인 중 범주화된 소득과 주관적 계층 인식에서 결측치를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1,382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2) 측정

### ① 종속 변수:

**자발적 결사체:** 본 자료에 자발적 결사체 활동에 관한 문항은 총 9 문항으로, 1) 정치 모임 2) 주민협회, 반상회, 3) 사회봉사 클럽 4)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협동조합 5) 종교집단 6) 동창회 7) 여가모임, 취미 및 스포츠 모임 8) 노동조합 9) 직능/상거래 단체가 이에 속한다. 측정은 ‘구성원이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구성원이다, 그러나 모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구성원이 아니다’로 이루어졌는데, 구성원인 경우 1, 구성원이 아닌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sup>19)</sup>

---

19) 응답자로 하여금 적극성 정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문항이라는 점, 그리고 분석의 편의를 고려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이분변수로 조작하지 않고 서열로지스틱을 수행했을 때의 결과도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서열로지스틱 결과는 부록에 제시한다.



② 주요 설명 변수: 부모 지위, 결혼 지위, 성별, 기타 통제 변인

본 연구의 핵심 예측변수는 성별, 부모지위, 결혼지위로 구성된다. 성별은 예측변수임과 동시에 조절변수로서 여성을 준거 집단으로, 남성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결혼 지위는 기혼 집단을 준거 집단으로 설정하고 사별 집단, 이혼/별거집단, 미혼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부모역할은 자녀의 여부를 묻은 문항을 이용하여 더미변수화 했다.

연령은 만나이로 측정된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되, 결사체 가입과 비선형적 관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곱 항을 분석에 동시에 포함했다.

교육 수준은 중학교 이하를 준거집단으로, 고등학교, 2-4년제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이상의 더미를 만들었다.

종교는 구분 없이 종교가 있는 응답자를 1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가구소득은 소득 없음, 50-99만원, 100-149만 등 50만원 간격으로 950-999만원까지와 1000만원 이상 등 21개의 범주로 구분된 서열변수를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사용하였다. 가독성을 위해 기술통계 표에서는 일곱 개의 범주만 표시하였다.

이 외에 취업여부, 거주지역(수도권, 전라, 경상, 충청, 제주/강원)를 범주형 변수로 통제하였고, 연속형 변수로 주관적 계층 귀속감,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관적 인식, 거주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통제하였다.

### 3) 방법

분석기법은 회귀분석을 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성별과 부모 역할, 결혼 지위가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주된 관심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가정 내 사회적 역할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때문에 성별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하며, 조절변수인 성별과 여타 요인을 곁한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로지스틱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 4. 분석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1>, <표 2>와 같다. 성별은 여성이 55.8%로 약간 더 많았고,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34.5%로 가장 많았다. 혼인상태는 응답자의 59.53%가 기혼이라고 응답했고, 미혼 20.3%, 이혼 0.86%, 별거 4.15%, 사별 14.9% 등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0%를 차지했고, 76%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6%가 취업상태라고 응답했으며, 이 중 동창회의 구성원은 47.78%, 사회봉사 단체의 구성원은 16.48%를 차지했다.

<표 1> 기술통계: 범주형 변수

변수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617	44.20
	여성	779	55.80
학력	중학교 이하	475	34.03
	고등학교	405	29.01
	전문대/대학교	481	34.46
	대학원 이상	35	2.51
결혼 상태	기혼	831	59.53
	미혼	283	20.27
	별거	58	4.15
	이혼	12	0.86
	사별	208	14.90
	동거	4	0.29
종교	있음	837	59.96
	없음	559	40.04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01	21.62
	100-199만원	208	14.94
	200-299만원	210	15.09
	300-399만원	213	15.20
	400-499만원	145	10.42
	500-599만원	104	7.47
	600만원 이상	211	15.16
부모 역할	자녀 없음	332	23.78
	자녀 있음	1,064	76.22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629	45.06
	충청/대전	138	9.89
	경상/부산/울산 /대구	414	29.66
	전라/광주	200	14.33
	제주/강원	14	1.07
취업 여부	미취업	756	54.15
	취업	640	45.85
사회봉 사단체	구성원	230	16.48
	비구성원	1,166	83.52
동창회	구성원	667	47.78
	비구성원	729	52.22

이 외에 연속형 변수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50.62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sup>20)</sup> 주관적 계층 귀속감은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한다면 귀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의 문항에 10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물음에 ‘큰 도시’, ‘큰 도시 주변’, ‘작은 도시’, ‘시골마을’, ‘외딴 곳’으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현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은 ‘귀하는 같은

20) 이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를 변수화하여 3절에서와 동일한 분석을 수행해보았을 때 일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사용한 자료에서는 응답자로 하여금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보(최대 10명)를 묻고 있다. 이 중 나이 정보를 활용하여 20세 미만의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를 변수화하였지만,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역(동네/도시)에서 얼마나 오래 동안 살고 계십니까?’의 물음에 대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표 2> 기술통계: 연속형 변수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연령	50.62	18.20	18	95
주관적 계층 귀속감 (하층-상층)	4.42	1.72	1	10
주관적 지역 인식 (외딴곳-큰 도시)	3.40	1.14	1	5
지역(동네/도시)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있는지	5.51	2.20	1	8

## 2) 결혼 지위가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 3>은 배우자 역할이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 1]은 배우자 역할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결사체 참여를 예측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기본 모형이다. 통제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연령뿐만 아니라 연령의 제곱항도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제곱의 회귀계수가 음(-)임을 고려할 때 연령에 따른 결사체 참여 확률 분포는 위로 볼록한 형태의 2차 함수 곡선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령 증가에 따라 결사체 참여의 정도가 증가하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시 감소하는 경향성을 암시한다. 교육 수준을 보면, 중학교 이하의 집단에 대비해 고등학교 이상, 그리고 대학교 이상의 집단에서 더욱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소득의 경우, 범주화된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더욱 높은 예측확률을 나타낸다. 이외에, 주관적 계층 귀속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거주인식이 높을수록 높은 예측 확률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예측 확률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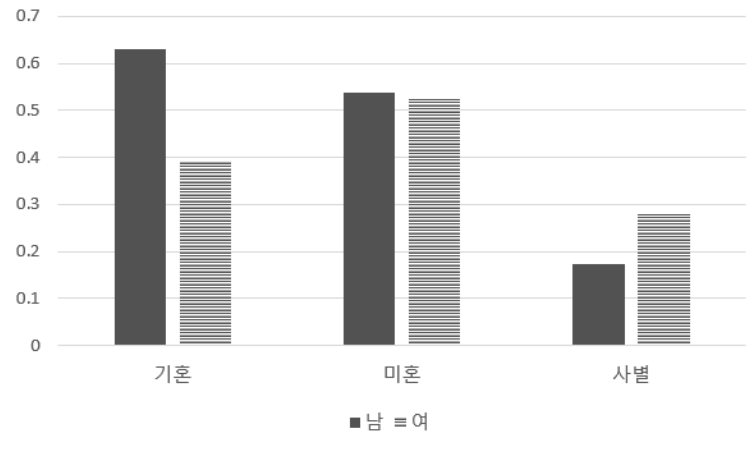
[모형 1]에서 결혼 지위의 효과를 살펴보면, 사별집단의 경우 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동창회 참여 예측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연구 문제1]를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 2]를 살펴보면, 사별 집단과 미혼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다.( $P<.05$ ,  $P<.001$ ) 상호작용효과의 직접적인 해석을 위해, 이를 <그림 3>에 시각화 하였다.

<표 3> 동창회 참여 예측 로지스틱회귀분석

설명 변수	Model 1	Model 2
배우자 역할 (ref=기혼집단)		
사별	-0.942***	-0.517*
이혼/별거	-0.449	-0.463
미혼	0.016	0.521*
남성	0.616***	0.948***
배우자 역할-성별 상호작용		
사별 x 남성		-0.157***

이혼/별거 x 남성		-0.031
미혼 x 남성		-0.904***
연령	0.093***	0.109***
연령제곱	-0.000***	-0.001***
교육 (ref=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744***	0.755***
전문대/대학교	0.616***	0.580***
대학원	0.555	0.465
종교	-0.122	-0.129
소득	0.040***	0.042***
취업 여부 (ref=취업)	-0.130	-0.054
거주지역 (ref=수도권)		
충청	0.082	0.077
경상	0.227	0.217
전라	0.291	0.300
제주/강원	-0.005	0.025
주관적 계층 귀속감	0.065*	0.071*
주관적 거주 지역 인식	0.133**	0.126**
거주 지역 거주 기간	-0.027	-0.028
상수	-3.715***	-4.211***
Pseudo R <sup>2</sup>	0.1297	0.1373
LR chi2	248.15***	262.65***
Log likelihood	-832.639	-825.386
N	1382	1382

\*p<.1 \*\*p<.05 \*\*\*p<.001 (two-tailed)



<그림 3> 결혼 지위에 따른 동창회 참여 예측 확률

<그림 3>을 살펴보면, 남성인 경우 기혼집단에 비해 미혼집단의 경우 참여확률이 62%에서 53%로, 사별집단의 경우 17%로 각각 9%p, 45%p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여성인 경우 기혼 집단에 비해 미혼 집단의 참여확률은 39%에서 52%로 1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별 집단의 경우 27%로 12%p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횡단면 자료를 사용한 분석을 통해 인과적 해석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역할의 점유 여부(미혼집단)와 배우자 역할의 상실(사별집단)의 효과가 남성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성의 경우 기혼집단에 비해 미혼집단의



경우 오히려 참여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등은 주목할 만하다.

<표 4>은 사회봉사단체 참여를 예측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중학교 이하 집단에 비해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이상, 대학원 이상(각각)의 집단이 높은 참여 확률을 보여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종교의 경우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 $P<.001$ ) 부(-)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확률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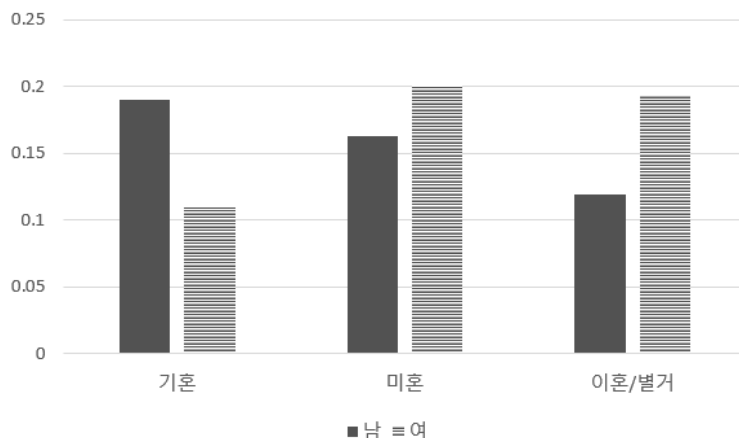
[모형 1]에서는 결혼 지위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고있지만, 본 연구의 [연구문제1]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지위와 성별 상호작용을 분석에 포함하여 [모형 2]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혼/별거 집단에서, 그리고 미혼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각각  $P<.1$ ,  $P<.05$ )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그림 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 사회봉사단체 참여 예측 로지스틱회귀분석

설명 변수	Model 1	Model 2
배우자 역할 (ref. 기혼집단)		
사별	-0.147	-0.082
이혼/별거	0.147	0.662
미혼	0.163	0.684*
남성	0.378**	0.617***
배우자 역할-성별 상호작용		
사별 x 남성		0.114
이혼/별거 x 남성		-1.212*

미혼 x 남성		-0.873**
연령	0.105***	0.113***
연령제곱	-0.000***	-0.001***
교육 (ref=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615***	0.608***
전문대/대학교	0.677**	0.639**
대학원	1.728***	1.672***
종교	-0.578***	-0.587***
소득	0.040**	0.040**
취업 여부 (ref=취업)	0.160	0.229
거주지역 (ref=수도권)		
충청	-0.101	-0.099
경상	0.184	0.142
전라	0.529**	0.533**
제주/강원	0.211	0.193
주관적 계층 귀속감	0.014	0.018
주관적 거주 지역 인식	0.025	0.019
거주 지역 거주 기간	0.020	0.022
상수	-5.613***	-5.878***
Pseudo R <sup>2</sup>	0.0645	0.0702
LR chi2	79.89***	86.91***
Log likelihood	-578.961	-575.451
N	1382	1382

\*p<.1 \*\*p<.05 \*\*\*p<.001 (two-tailed)



<그림 4> 결혼 지위에 따른 사회봉사단체 참여 예측

<그림 4>을 살펴보면, 남성인 경우 기혼집단에 비해 미혼집단의 경우 참여 예측 확률이 19%에서 16%로, 이혼/별거 집단의 경우 11%로 각각 3%p, 5%p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여성인 경우 기혼집단에 비해 미혼집단에서 참여확률이 10%에서 20%로, 이혼/별거 집단에서 19%로, 각각 10%p, 9%p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동창회 참여 예측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역할의 점유 여부(미혼집단)와 배우자 역할의 상실(이혼/별거집단)의 효과가 남성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고, 그리고 여성의 경우 기혼집단이 아닌 경우 오히려 참여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하면, 결사체 참여에 영향을 주는 공통의 설명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의 분석에서 모두 배우자 역할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의 분석에서, 남성의 경우 기혼집단에 비해 배우자 역할이 없거나(미혼

집단), 상실한 경우(이혼/사별)에 참여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가설1-1]. 이는 특히 여성의 경우 하나의 경우의 수(동창회 예측-사별 집단)를 제외하고, 기혼집단에 비해 배우자 역할이 없는 경우 참여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가설 1-2]. 이는 이혼과 같은 배우자 역할의 상실이 남성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가진다는 것을 보고해온, 앞선 논의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패널 자료와 분석기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들은 배우자 역할이 없거나 없어진 남성들의 경우 2차적 사회 관계망이 부정적인 효과를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 3) 부모 지위가 결사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 5>와 <표 6>은 부모 역할의 효과를 살펴보는 결사체 참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2절에서 수행된 분석과 동일하게 통제변인이 포함되었고, 부모 역할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과 대비시켰다.

[모형 1]에서 먼저 주요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남성일수록, 그리고 중학교 이하 집단에 비해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의 집단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 귀속감과 주관적 거주 지역 인식이 높을수록 예측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연령과 연령의 제곱항은 앞 절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확률이 증가하고, 다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2]는 성별에 따른 부모 역할의 차별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

한 상호작용모형이다. 연령, 교육수준, 소득, 주관적 계층 귀속감, 주관적 거주인식 등 여타 통제변인에 있어서는 [모형 1]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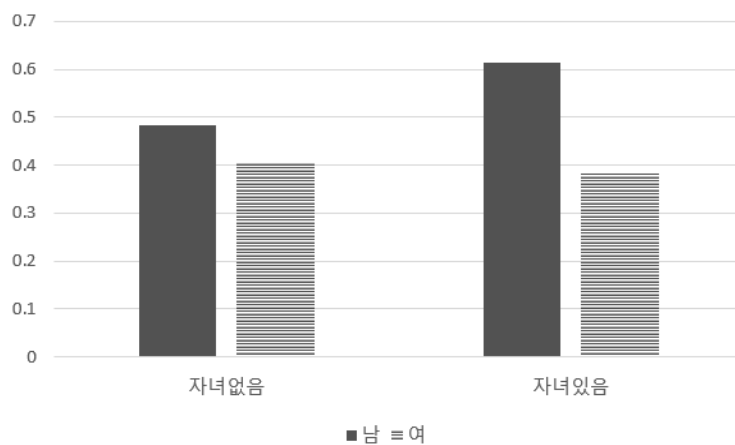
[모형 1]과 비교하였을 때, 부모 역할의 효과는 오로지 성별이 고려되었을 때만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여부 자체가 결사체 참여 예측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성별이 고려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P<.05$ )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직관적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이를 확률의 형태로 변환하여 시각화하면 <그림 5>와 같다.

<표 5> 동창회 참여 예측 로지스틱회귀분석

설명 변수	Model 1	Model 2
부모역할 (자녀여부=1, 없음0)	0.274	-0.063
남성 (ref. 여성)	0.743***	0.319
부모역할 - 성별상호작용 부모 x 남성		0.590**
연령	0.076***	0.083***
연령제곱	-0.000***	-0.000***
교육 (ref.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807***	0.805***
전문대/대학교	0.685***	0.653***
대학원	0.617	0.556
종교	-0.106	-0.125
소득	0.047***	0.048***
취업여부 (ref. 취업)	-0.127	-0.093

거주지역 (ref. 수도권)		
충청	0.081	0.092
경상	0.216	0.200
전라	0.282	0.301
제주/강원	0.004	0.013
주관적 계층 귀속감	0.067*	0.067*
주관적 거주 지역 인식	0.131**	0.129**
거주 지역 거주 기간	-0.026	-0.024
상수	-3.594***	-3.465***
Pseudo R <sup>2</sup>	0.1206	0.1230
LR chi2	230.73***	235.26***
Log likelihood	-841.347	-839.081
N	1382	1382

\*p<.1 \*\*p<.05 \*\*\*p<.001 (two-tailed)



<그림 5> 부모 역할에 따른 동창회 참여 예측 확률

<그림 5>를 통해, 남성 응답자의 경우 부모 역할의 점유로 인해 동창회 참여 예측 확률이 48%에서 61%로 13%p가 증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여성 응답자의 경우 40%에서 38%로 2%p 감소한다. 예측 확률의 감소 수준이 크지는 않지만, 부모 역할의 효과가 성별을 고려할 경우에만 유의미한,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6>은 같은 방식으로 [사회봉사 단체] 참여를 예측하는 두 가지의 모형의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효과는 앞서 살펴본 [동창회] 예측 모형과 유사하다.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욱 높은 참여확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령 또한 마찬가지로의 패턴이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종교가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sup>21)</sup>

마찬가지로 두 가지 모형의 비교를 통해 부모 역할의 성별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모형 1]에서 볼 수 있듯 자녀 여부 자체가 결사체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오직 성별의 차별적 효과가 고려된 이후에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P < .05$ )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동일한 방식으로 시각화하면 <그림 6>과 같다. 예측확률이 남자의 경우 10%에서 21%로 11%p 증가하는 데에 반해, 여성의 경우 13%에서 12%로 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21) 분석에서 종교 집단 별로 세분화하지는 않았지만, 불교와 개신교는 자료상에서 응답자 분포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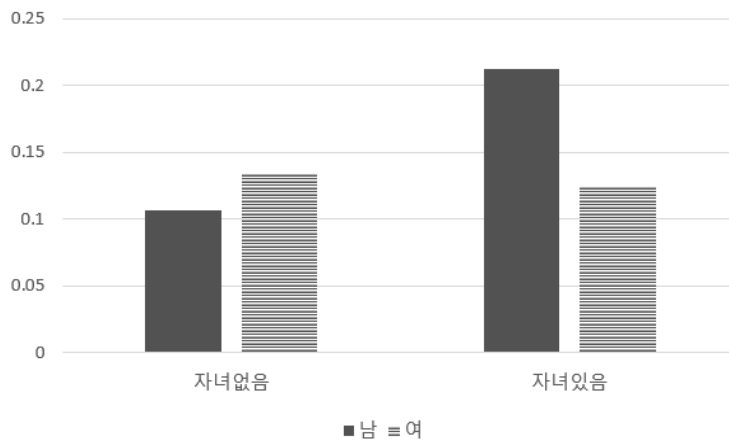
<표 6> 사회봉사단체 참여 예측 로지스틱회귀분석

설명 변수	Model 1	Model 2
부모역할 (자녀여부=1, 없음0)	0.470	-0.075
남성 (ref. 여성)	0.454***	-0.260
부모역할 - 성별상호작용 부모 x 남성		0.892**
연령	0.065*	0.072**
연령제곱	-0.000*	-0.000**
교육 (ref.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599***	0.587**
전문대/대학교	0.671**	0.629**
대학원	1.698***	1.624***
종교	-0.586***	-0.607***
소득	0.037**	0.039**
취업여부 (ref. 취업)	0.167	0.211
거주지역 (ref. 수도권)		
충청	-0.078	-0.068
경상	0.204	0.186
전라	0.532**	0.553**
제주/강원	0.226	0.247
주관적 계층 귀속감	0.009	0.008
주관적 거주 지역 인식	0.026	0.024
거주 지역 거주 기간	0.018	0.020
상수	-4.746***	-4.431***
Pseudo R <sup>2</sup>	0.0661	0.0702



LR chi2	81.86***	86.91***
Log likelihood	-577.974	-575.448
N	1382	1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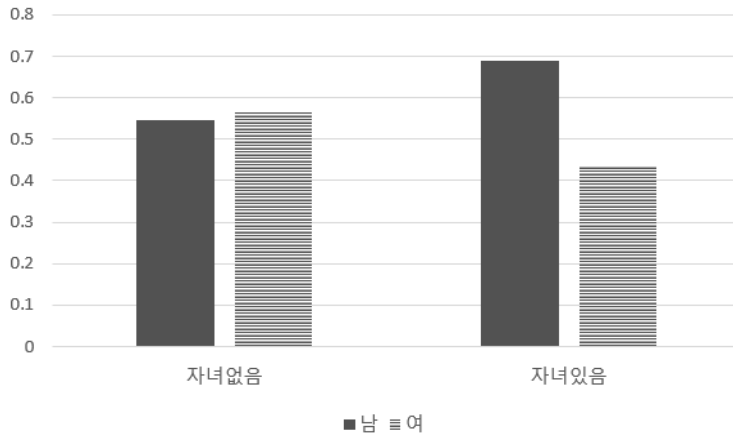
\*p<.1 \*\*p<.05 \*\*\*p<.001 (two-tailed)



<그림 6> 부모 역할에 따른 사회봉사단체 참여 예측

이처럼 두 차례의 분석을 통해서 부모 역할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패턴은 경제 활동 참여 영역에서도 나타날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취업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해 보았다.<sup>22)</sup>

22) 취업의 경우 1의 값을, 미취업의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여 변수를 재생성하였다. 앞서 수행한 <표 5>, <표 6>과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만 이전에 통제변인으로 포함되었던 취업 여부는 제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7> 부모 역할에 따른 취업 여부 예측

분석 결과, 앞서 얻은 분석 결과들과 동일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부모 역할 점수는 오로지 성별을 고려할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P < .001$ )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취업 예측 확률이 54%에서 68%로 14%p 증가하는 것에 반해, 여성의 경우 56%에서 43%로 1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결사체 참여에 영향을 주는 공통의 설명 요인은 연령, 학력, 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의 분석에서 모두 부모 역할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1]을 지지하였다. 흥미롭게도 취업 여부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수행한 분석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 여성에게 지워진 가사노동의 의무와 경제활동의 축소를 논의하는 기존 연구

들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노동 시장이 “엄격한 경제논리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사회문화적 요소, 특히 가족이데올로기 등과 결합”(장경섭, 2009)한다는 주장을 지지해주며, 가족주의의 정치적 결과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힘을 실어준다.

## 5. 결론 및 토론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의 조직 원리를 경쟁과 효율의 가치로 대체했고, 이러한 사회변동은 정치질서의 구성방식에 있어 체계정치를 넘어 생활정치의 패러다임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오늘날 결사체를 통한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까닭이다. ‘위험사회’가 전지구적으로 보편화된 가운데 국가-개인으로 단순하게 연결되었던 관계가 국가-지역 공동체-개인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박길성, 2013; 김기홍, 2014: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결사체 참여 현황은 매년 그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통계청, 2013; 2014; 2015), 고독사와 같은 소식을 전하는 뉴스들은 고독한 현대인의 자화상을 확인해주는 듯하다.

사람들은 왜, 어떻게 결사체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인가? 어떤 이는 스포츠 모임, 봉사 단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반면 어떤 이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듯 기실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대한 선호로 볼 수 있는 결사체 참여가 왜 사회학적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정치학자 버바와 동료들은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이나 실천은 개인의 취향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 사회적 과정임을 지적하며, 상수로 주어진 선호의 기원을 탐구할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Verba et al. 2003).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관심과 궤를 같이하며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사적 가족 영역 내의 사회적 역할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이에 따른 여성의 결사체 참여로부터의 배제를 설명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권의 배제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차례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배우자 역할은 두 결사체로의 참여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성별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보여준다. 즉, 남성의 경우 기혼 집단에서 여타 집단에 비해 높은 참여 예측 확률을 보여주지만, 여성의 경우 반대로 기혼 집단의 경우 여타 집단에 비해 낮은 참여 예측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배우자 역할의 부재가 남성에게 있어 부정적인 효과, 2차적 연결망의 축소를 가져온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의 경우 배우자 역할이 없는 경우 참여 확률이 높아지는 것 또한 흥미로운 발견이었다. 둘째,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로 동창회 참여와 사회봉사 단체 참여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모두 영향을 주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성별을 고려했을 때에만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 즉,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와 남성인 경우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아이가 있을 때 참여 예측 확률이 낮아지고, 반대로 남성의 경우 아이가 있을 때 참여 예측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육아와 같은 가사 노동이 여성에게 주로 지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여성에게 지워진 가족 영역 내 사회적 역할이 그들의 결사체로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표 3>, <표 4>의 분석을 통해 여성의 경우 배우자 역할이 부재할

때 결사체로의 참여 예측 확률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 참여 예측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두 개의 결사체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부모 지위에서 오는 역할 정체성이 부재하는 조건 아래에서도 여성들이 공동체로의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아내 역할의 점유가 이러한 의지를 제약하고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한편 <표 5>와 <표 6>의 분석을 통해 부모 역할의 점유가 여성의 결사체 참여(동창회와 사회봉사단체 모두) 예측 확률을 낮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봉사에 더욱 참여 하며(Wuthnow, 1998), 특히 여성의 경우 자신의 부모 역할 정체성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킨다는 서구의 연구 결과(Negrey, 1993)들을 염두에 둘 때 더욱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도구적 가족주의’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공적 영역의 축소 및 시민 문화 축진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성에게 지워진 가사노동과 이로 인한 경제적 영역의 축소를 두고, 이에 관심을 가지는 기존의 연구들은 가족지원프로그램과 같은 제도적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가능한 제도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돌봄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만이 여성시민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견지에서는 양육이나 돌봄노동의 가치에 주목하며, 이러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안정을 사회정책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김수정, 2004). 이런 논의들을 공동체 기반 결사와 같은 시민적 참여 영역으로 옮겨오는 것은 어렵다. 이들 영역으로의 참여의 효과가 노동시장으로의 참여와는 달리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사체 참여의 사회적 수준에서의 집합적 효과, 즉 시민적·정치적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이는 더욱 세밀한 분석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만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들은 배우자 역할의 부재나 상실이 가져오는 효과에 있어서 남성들이 더욱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가족이라는 1차적 사회 관계가 ‘관계 자원’으로서의 가지는 중요성 및 가용성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욱 중대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배우자 역할의 부재나 상실은 남성의 주관적 안녕감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의 결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횡단면 자료를 통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인과적 해석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미혼 혹은 사별과 같은 배우자 역할의 부재 혹은 상실은 사실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사회경제적 배경과 맞물리는 코호트 효과로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도 가진다. 이에 추후 연구를 통해 명확한 기제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핵심 변수 중 하나인 ‘부모 역할’을 측정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자녀의 나이가 미성년일 경우, 그리고 성인일 경우에 따라 부모 역할과 돌봄·양육 노동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 참여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나이가 든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 비해 더 적은 시간을 봉사에 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 결과들(Damico et al 1998, Scholzman et al 1994), 그리고 취학아동이 있는 경우 부모들은 학교나 방과 후 관련 단체들에 관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경향성을 보고한 연구 결과들(Gora & Nemerowicz 1985)을 고려한다면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한 또 하나의 한계점은 비공식적 자발적 결사체에 관한 것이다. 2000년대 후반 한국의 여성들은 촛불 시위의 주역으로 활약하기도 하고, 학교 급식 등 이슈의 중심에 있던 문제들과 관련하여 적극적 참여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생활정치 이슈들이 정치과정의 핵심 쟁점이 되면서 주요 이슈 논쟁에 여성들의 노출이 빈번해졌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이소영, 2013). 오늘날 비공식적 조직들의 역할 혹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 참여의 비중이 커진 가운데, 생활세계 내의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더욱 정교한 분석들과 측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기든스, 앤서니, 올리히 벡, 스콧 래쉬. 1998. *성찰적 근대화*. 임현진·정일준 역. 한울.
- 김기홍. 2014. *마을의 재발견: 작은 정치·경제·복지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올림.
- 김상준. 2003. “시민사회 그리고 NGO·NPO의 개념: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9-22
- 김상준. 2011. *미지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를 구상하다*. 아카넷.
- 김석호. 2016.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와 시민성”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 2005-2015*. 이내영·강원택 편저. pp.97-125. 동아시아연구원
- 김성경. 2009. “사회적 자본 요인 및 자원봉사활동 요인이 평균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317-337
- 김수정. 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한국사회학. 38(5): 209-33
- 김수정·권신영. 2001. “이혼과정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상담사 레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8(0):41-75
- 김수정·김은지. 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교환 혹은 젠더보상?.” 한국사회학. 41(2):147-174
- 김안나. 2003. “가족과 사회연결망: 독일과 한국의 개인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37(4):67-99.
- 김영미. 2009. “한국의 복지 체제와 젠더: 일 가족 양립 정책 개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5(4):281-305



- 김영배. 2013. *동네 안에 국가 있다: 공공성의 정치 마을 정치 생활 정치를 향하여*. 백산출판사
- 김우식. 2004. “연결망과 반연결망.” *사회와이론* 4:63-94.
- 니스벳, 리처드. 2004. 2004. *생각의 지도: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최인철 역. 김영사.
- 류석춘·왕혜숙. 2008. “사회자본 개념으로 재구성한 한국의 경제발전.” *사회와이론*. 12:109-162
- 류석춘, 왕혜숙, 박소연. 2012.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신뢰 비교 연구- 동창 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 17:203-269
- 마셜, T.H. 2013. *시민권과 복지국가*. 김윤태 옮김. 이학사.
- 손정연·한경혜. 2012. “노년기 여성의 결혼지위와 건강에 관한 종단 연구- 연령 및 부모-자녀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1):211-238.
- 송경재. 2014. “사회적 자본과 여성의 정치참여: 저신뢰와 세대, 이념적 분극화.” *한국정치연구* 24(2):1-24.
- 송호근. 1998. “신사회운동 참여자 분석.” *한국사회과학*. 20(3):45-74
- 신진욱. 2007. “공공성과 한국사회.” *시민과세계*. 11:18-39.
- 안병철. 2011. “한국 사회의 성역할 변화: 현황과 대응.” *사회와이론*. 17:257-277
-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3):23-43
- 이민아. 2013. “계획적 무자녀 가족: 한국 사회에서 아이 갖기의 의미와 가족주의의 역설”. *한국사회학*. 47(2):143-176.
- 이선미. 2003. “여성의 시민참여와 사회자본: 자원결사체 참여의 성별분리”. *한국여성학*. 20(1):163-193

- 이선미. 2004. “푸트남의 사회자본론 비판과 비교사회론적 함의: 신뢰를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4:185-224.
- 이소영. 2013. “2012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과 투표행태.” 한국정치학회보. 47(5):255-276
- 이승훈. 2002. 한국사회의 ‘시민됨’ 형성과정: 자발 결사체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훈. 2008. “근대와 공공성 딜레마: 개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3:13-45.
-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자본”. 계간사상. 37:65-93
- 이재열. 2001. “의리인가 계약인가?: 인격주의와 개인주의의 갈등적 공존과 한국사회의 제문제.” 석현호·류석춘 공편, *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 현대:159-188.
- 이재열. 2003. “사회적 자본과 시민의식: 서울시와 자치구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주는 함의.” 지역사회학. 5(1):41-81
- 이재열·남은영. 2008.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 42(7):178-214
- 이재혁. 1996. “신뢰, 거래 비용, 그리고 연결망.” 한국사회학. 30(3):519-543.
- 이재혁. 2007. “시민사회와 시민적 자본.” 사회와이론. 10: 213-261.
-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 장경섭. 2015.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소득보장, 교육,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3):1-38.
- 장익진. 1998. *다차원 척도 분석법*. 연암사.

- 장지연·부가청. 2002. “숨겨진 선택: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과 자녀양육.” 여성연구. 65:149-179.
- 전신현. 2007. “이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남녀차이.” 보건과 사회과학. 20:5-27.
- 정재기. 2007. “한국의 가족 및 친족간의 접촉빈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상: 국제간비교의 맥락에서.” 한국인구학. 30(3):157-178.
- 조대엽. 2012.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성장”. *탈냉전사의 인식: 세계화 시대 한국사회의 문제의식*. pp.415-451. 한길사.
- 조대엽. 2014. *갈등사회의 도전과 미시민주주의의 시대: 새로운 사회 갈등과 공공성 재구성에 관한 사회학적 성찰*. 나남.
- 조대엽. 2015. *생활민주주의의 시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나남.
- 조혜정. 198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17:81-98.
- 차승은. 2007. “노인의 결혼지위 점유에 따른 건강차이: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매 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2):371-392
- 최셋별, 이명진, 김재은. 2003. “한국의 가족 관련 사회정체성 연구: 감정조절이론 (ACT)의 수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7(5):1-30.
- 최선영·장경섭. 2009. “6장. 성분업의 근대적 재구성”.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 피어슨, 크리스토퍼. 1998. *근대국가의 이해*. 박형신·이택면 역. 일신사.
- 터너, 브라이언. 1990. *시민권과 자본주의*. 서용석·박철현 역. 일신사.
- 통계청.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개발원

- 통계청. 2015. 한국의 사회 동향 2015. 통계개발원
- 통계청. 2014. 한국의 사회 동향 2014. 통계개발원
- 통계청. 2013. 한국의 사회 동향 2013. 통계개발원
- 허명희. 2010. *SPSS Statistics 척도화 분석*. 데이터솔루션.
- 헬드, 데이비드. 2010. *민주주의의 모델들*. 박찬표 역. 후마니타스.
- Amond, G. A., and S.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rcacyn in Five N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yala Louis J. 2000. “The Differing Effects of Voluntary and Involuntary Organizations on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3(1):99-115
- Barbara Laslett & Johanna Brenner. 1989. “Gender and Social Reproduction: Historical Perspectiv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381-404.
- Becker, G. S. 1954. *Human Capital: A Theoretial and Empirical Analysis*.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ecker, G. 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493-517
- Berger, Peter L. and Thomas Luckman. 199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Anchor Books.
- Brady, Henry E., Verba, Sidney, and Scholzman, Kay Lehman. 1995. “Beyond SES: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271-294
- Brehm. J., and W. Rahn.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999-1023
- Brubaker, R. 1992.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Campbell, Angus, Phil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 Cohen, J.L. and A. Arato.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London: MIT Press.
- Cornwell, B., Laumann, E., and Schumm, P. 2008. “The Social Connectedness of Older Adults: A National Profi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185-203.
- Curtis, James E., and Douglas E. Baer, and Edward G. Grabb. 2001. “Nations of Joiners: Explaining 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 in Democratic Socie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783-805
- Damico A, Damico S, Conway M. 1998. “The democratic Education of Women: High School and beyond.” *Women Politics*. 19:1-31
- Fung, Archon. 2003. “Association and Democracy: Between Theories, Hopes, and Realities.” *Annual Review of*

- Sociology*. 29:515-39.
- Gaskin K, Smith J. 1997. *A New Civic Europe? A Study of the Extent and Role of Volunteering*. London: National Center for Volunteering.
- Gora J, Nemerowicz G. 1985. *Emergency Squad Volunteers: Professionalism in Unpaid work*. New York: Praeger.
- Hall M, Knighton T, Reed P, Bussiere P, Macrae D, Bowen P. 1998. *Caring Canadians. Involved Canadians*. Ottawa: Statist. Canada
- Heater, D. 1990. *Citizenship: The Civic Ideal in World History, Politics and Education*. London: Longman.
- Horwitz Allan V, White Heleane Raskin, Howell-White Sandra. 1996. "Becoming married and mental health: A longitudinal analysis of a cohort of young adul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895-907
- Hyden, Goran. 1997. "Civil Society,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Dissection of a Complex Discourse."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32(1):3-30.
- Kim, Seokho. 2016. Quality of Civil Socie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ISSP Countries. *Development and Society*. 45(1):113-150.
- Manin, Bernard. 1997.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yer, John and Ronald Jepperson. 2000. "The "Actors" of

- Modern Society: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ocial Agency.” *Sociological Theory*. 18:100-20
- Negrey C. 1993. *Gender, Time and Reduced Work*. Albany: State University NY Press.
- Newton, Kenneth.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575-586
- Pamela Paxton. 2002.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254-277
- Pateman, C. 1988. “The patriarchal welfare state”, A. Gutman, *Democracy and the Welfare State*. pp.231-260.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안청시 외 옮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2000)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Schuster.
- Schlozman K, Burns N, Verba Sidney. 1994. “Gender and the pathways to participation: the role of resources.” *Journal of Politics*. 56:963-90
- Schofer, Evans and Marion Fourcade-Courinchas. 2001. “The Structural Contextx of Civic Engagement: Voluntary

- Association Membership in Comparative Perspectiv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806-828.
- Skocpol, Theda. 1996. “Unraveling from Above.” *The American Prospect*. 25:20-25
- Skocpol, Theda and Morris Fiorina, eds. 1999.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Brookings Institutions Press.
- Stolle, Dietlind; Rochon, Thomas R. 1998. “Are All associations alik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1):47-65
- Sundeen R. 1990. “Family life course status and volunteer behavior: implications for the single parent.” *Sociological Perspective*. 33:483-500
- Tocqueville, Alexis de, 1968. *Democracy in America*. London: Fontana.
- Verba, Sidney, Burns, Nancy, and Scholzman, Kay Lehman. 2003. “Unequal at the Starting Line: Creating Participatory Inequalities across Generations and among Groups.” *The American Sociologist* 34(1): 45-69
- Verba, Sidney, Burns, Nancy and Scholzman, Kay Lehman. 1997. “Knowing and Caring about Politics: Gender and Political Engagement.” *The Journal of Politics*. 59(4):1051-1072
- Verba, Sidney, Kay Lehman Scholzman, and Henry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Harvard Univ Press.
- Vogel, U. 1991. “Is citizenship gender-specific?”, U. Vogel and



- M. Mann, *The Frontiers of Citizenship*. pp.58-85. London: Macmillan.
- Will Kymlicka and Wayne Norman. 1994. "Return of the Citizen: A Survey of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Ethics*. 104(2):352-381
- Willson J, Musick M. 1997. "Who care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volunteer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694-713
- Willson J. 2000. "Volunteer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215-40.
- Wolbrecht, Christina and Campbell, David E. 2007. "Leading by Example: Female Members of Parliament as Political Role Model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4):921-939.
- Wothnow R. 1998. *Loose Connections: Joining Together in America's Fragmented Communitie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부록

### ① 다차원 척도분석 결과<sup>23)</sup>

<표 7> 다차원 척도 스트레스 및 적합도 측정

정규화된 원래 스트레스	.00014
스트레스-I	.01179 <sup>a</sup>
스트레스-II	.01952 <sup>a</sup>
S-스트레스	.00037 <sup>b</sup>
설명된 산포	.99986
Turcker의 적합계수	.99993

a. 최적척도 요인 = 1.000.

b. 최적척도 요인 = 1.000.

<표 8> 결사체 간 근접도

	Q78-1. 구성원 여부: 정치 모임	Q78-2. 구성원 여부: 주민협회, 반상회	Q78-3. 구성원 여부: 사회봉사 클럽(자원봉 사단체, 비영리단체)	Q78-4. 구성원 여부: 시민사회 단체, 소비자 협동조합
Q78-1. 구성원 여부: 정치 모임	.000			
Q78-2. 구성원 여부: 주민협회, 반상회	.601	.000		
Q78-3. 구성원 여부: 사회봉사 클럽(자원봉사단체, 비영리단체)	.600	1.125	.000	

23) 2차원 MDS의 스트레스(즉, 스트레스-1) 값이 0.011로 나타났다. 크루스칼의 기준에 의하면 적합정도가 아주 좋음(0.02)에 해당한다(허명희, 2010, 장익진, 1996).

Q78-4. 구성원 여부: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협동조합	.235	.726	.402	.000
Q78-5. 구성원 여부: 종교집단	.703	1.282	.678	.734
Q78-6. 구성원 여부: 동창회(동창 모임)	1.338	1.523	.988	1.115
Q78-7. 구성원 여부: 여가 모임(취미 및 스포츠)	1.280	1.762	.682	1.068
Q78-8. 구성원 여부: 노동조합	.354	.544	.617	.270
Q78-9. 구성원 여부: 직업직능 단체 / 상거래 단체	.722	.726	.793	.587

	Q78-5. 구성원 여부: 종교집단	Q78-6. 구성원 여부: 동창회(동 창 모임)	Q78-7. 구성원 여부: 여가 모임(취미 및 스포츠)	Q78-8. 구성원 여부: 노동조합	Q78-9. 구성원 여부: 직업직능 단체 / 상거래 단체
Q78-1. 구성원 여부: 정치 모임					
Q78-2. 구성원 여부: 주민협회, 반상회					
Q78-3. 구성원 여부: 사회봉사 클럽(자원봉사단체, 비영리단체)					
Q78-4. 구성원 여부: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협동조합					
Q78-5. 구성원 여부: 종교집단	.000				
Q78-6. 구성원 여부: 동창회(동창 모임)	1.666	.000			
Q78-7. 구성원 여부: 여가 모임(취미 및 스포츠)	1.175	.895	.000		

Q78-8. 구성원 여부: 노동조합	.994	1.058	1.222	.000	
Q78-9. 구성원 여부: 직업직능 단체 / 상거래 단체	1.317	.800	1.236	.368	.000

## ② 서열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표 9> 결혼 지위의 효과: 서열 로지스틱 분석

설명 변수	Model 1 (동창회 예측)	Model 2 (사회봉사 예측)
결혼 지위(ref.기혼)		
사별	-0.576**	-0.031
이혼/별거	-0.447	0.689*
미혼	0.525*	0.783**
남성	0.912***	0.665***
결혼 지위 - 성별 상호작용		
사별 x 남성	-1.523**	0.008
이혼/별거 x 남성	0.009	-1.261*
미혼 x 남성	-0.770***	-0.973**
연령	0.110***	0.121***
연령제곱	-0.001***	-0.001***
교육 수준(ref.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736***	0.617***
전문대/대학교	0.469**	0.669**
대학원	0.421	1.787***
종교	-0.109	-0.596***
소득	0.038***	0.037**

취업여부(ref=취업)	-0.006	0.279
거주지역(ref=수도권)		
충청	0.060	-0.178
영남	0.171	0.141
호남	0.259	0.488**
강원/제주	0.266	0.070
주관적 계층 귀속감	0.079**	0.021
주관적 거주 지역 인식	0.069	0.010
거주 지역 거주 기간	-0.025	0.023
cut1	4.103***	6.110***
cut2	5.433***	6.889***
Pseudo R2	0.0912	0.0579
LR chi2	258.01***	89.87***
Log likelihood	-1285.107	-731.691
N	1382	1382

\*p<.1 \*\*p<.05 \*\*\*p<.001 (two-tailed)

<표 10> 부모 지위의 효과: 서열 로지스틱 분석

설명 변수	Model 1 (동창회 예측)	Model 2 (사회봉사 예측)
부모 역할 (자녀여부=1, 없음=0)	-0.192	-0.162
부모역할 - 성별상호작용	0.551**	0.964**
부모 x 남성		
남성	0.349	-0.305

연령	0.090***	0.080**
연령제곱	-0.000***	-0.000**
교육수준(ref=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811***	0.591**
전문대/대학교	0.554***	0.655**
대학원	0.510	1.728***
종교	-0.109	-0.615***
소득	0.044***	0.036**
취업여부(ref=취업)	-0.035	0.257
거주지역(ref=수도권)		
충청	0.070	-0.141
영남	0.153	0.185
호남	0.252	0.511**
제주/강원	0.265	0.126
주관적 계층 귀속감	0.074**	0.010
주관적 거주 지역 인식	0.073	0.016
거주 지역 거주 기간	-0.021	0.022
cut1	3.454***	4.556***
cut2	4.767***	5.335***
Pseudo R2	0.0807	0.0574
LR chi2	228.10***	89.19***
Log likelihood	-1300.063	-732.030
N	1382	1382

\*p<.1 \*\*p<.05 \*\*\*p<.001

③ 부모 지위가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 11> 취업 여부 예측 로지스틱회귀분석

설명 변수	Model 1	Model 2
부모역할 (자녀여부=1, 없음0)	-0.035	-0.777***
부모역할 - 성별상호작용		1.384***
부모 x 남성		
남성	0.952***	-0.026
연령	0.291***	0.301***
연령제곱	-0.003***	-0.003***
교육 (ref=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092	0.045
전문대/대학교	-0.099	-0.213
대학원	0.587	0.380
종교	-0.036	-0.081
소득	0.102***	0.104***
거주지역 (ref=수도권)		
충청	0.126	0.155
경상	-0.020	-0.059
전라	0.729***	0.780***
제주/강원	0.686*	0.709*
주관적 계층 귀속감	-0.083**	-0.084**
주관적 거주지역 인식	-0.122*	-0.129**
거주 지역 거주 기간	0.018	0.023
상수	-6.449***	-5.914***

Pseudo R <sup>2</sup>	0.2127	0.2236
LR chi2	405.21***	425.97***
Log likelihood	-749.934	-739.551
N	1382	1382

\*p<.1 \*\*p<.05 \*\*\*p<.001



## **Abstract**

# **Family Relations and Civic Engagement: effects of marital and parental status on 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

Eunhye Lee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 on 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s. While many studies reported that in South Korea, family-centered life plays an essential role in shaping the societal conditions of organizational order and economic development, few studies investigated how “familialism” exerts its impact on yet another important aspects of Korean society –civic engagement. Furthermore, we know little about how these family relation effects differ by gender.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how depending on the respondents’ gender, marital and parental status have differential

effects on taking part in voluntary associations. Given the social consequences of family-centered lifestyle i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in Korea, it can be expected that effects of taking parents/spouses roles would be varying depending on the respondents' gender. In addition, past studies reported mixed results when examining the social consequences of voluntary associations in Korea. It is argued that voluntary associations in Korea are unlikely to foster civic culture as expected in Putnam's notion of social capital, mainly because they tend to consist of homogeneous participants. While few would disagree with the idea that Korean associations are homogeneous, tha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y would have detrimental effects on society as a whole. In addition, it can also be problematic to assume that typology drawn solely by theoretical implications plays at work in practice.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Korean associations by generating a map where a set of 9 Korean associations a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choices made by the respondents.

For the analysis, the data from the 2012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was utilized. A logit regression was performed, and an interaction term (*gender x marital/parental status*) was added to look at its differential influenc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arital status is found to be a significant factor in

predicting 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s. Next, parental status is also found to be a significant factor in predicting 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 It is noteworthy that it is only in conjunction with the interaction term that parent status prove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ssuming parent/marital roles confines mothers/female spouses to the household, thereby lowering the possibility of females being active in voluntary association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mainly comes from the availability of data. First, this study fails to take the age of children into consideration. Though it may be obvious that children in the household are a constraint when it comes to taking part in voluntary association,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children's ag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get a more accurate picture. Finally, much effort is needed in figuring out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ale marital statuses and its impacts on their social networks.

**Keyword:** Voluntary Association, Gender Difference, Familialism, Parental Status, Marital Status.

**Student Number:** 2014-22311